

RIS 지역혁신 정책 자율과제 39건 발굴

전북자치도, 미래수송기기·에너지신산업·농생명바이오 등 핵심분야 위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지역혁신사업(RIS) 지역혁신 정책 자율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39건에 78억원 규모의 사업이 발굴·접수됐다.

세부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분야 4건 △핵심분야 외 도 부서별 수요과제 9건 △RIS 사업비 분담 시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수요과제 11건 △기타 10개 시군 현안과제 11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대학경쟁력강화 과제 2건 등 총 39건이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RIS 전담기관인 JB지산학협력단을 통해 접수된 서류를 사전 검토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선정 후 선정된 과제의 예산을 조정해서 5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RIS 자율과제는 핵심분야(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외의 지역현안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자유롭게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전북도는 지난해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RIS 총사업비인 429억원의 15%(64억원)까지 편성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RIS 핵심분야인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에 참여가 어려운 시군의 여건을 감안해 전국 최초로 시군 지역현안해결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주제로 자율과제를 공모했다.

올해는 시군 현안해결형 과제뿐만 아니라 현장기능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 트랙 공모와, 핵심분야 외 도 부서 수요과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늘봄 등 대학경쟁력 강화 분야를 공모 주제에 추가했다.

나혜수 전북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

장은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등 핵심분야 이외에도 행정수요는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그러한 요구에 대응한 이번 자율과제 공모를 통해 접수된 과제를 분석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남원 백향과를 활용한 푸드산업 활성화', '장수 산림레포츠 전문인력 양성', '순창 발효문화관광 육성' 등 시군 특성과 연계한 총 31건의 과제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시군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관광 매력 부산에 알린다

전북자치도, '제4회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 참가 미식, 웰니스·의료관광, 천리길 등 전북 테마관광 홍보

전북자치도가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전북특별자치도'를 2024년 비전으로 설정하고 문화·체육·관광산업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부터 3일간 서울 부산 벅스코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 참가해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대표 축제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자원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1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는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며, 지자체·여행업계·국내외 관광 관련 유관기관 등 3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축제 박람회이다.

도는 이번 박람회 주제인 '축제'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에 초점을 맞춰,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대표 축제와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홍보관을 조성하고, 방문객 대상으로 SNS 이벤트, B2B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식관광, 웰니스·의료관광, 전북천리길 등 전북의 테마관광을 홍보해 전북의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남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증대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북자치도만의 특색있는 관광정책 추진,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도지사, 건설현장 무사고·무재해 위한 현장 점검

잇단 중대재해 발생 경각심 고취 발주 공사현장, 선제적 정비 요청

"그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되는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최근 전북 지역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북자치도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전북 지역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6일 도립국악원 증개축 공사현장을 찾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전에 조치하고 예방하여 산업재해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안전조치에 미흡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063-280-2782~3)에 신청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는 지난 26일 전북자치도가 발주한 도립국악원 증개축 공사현장을 찾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높아진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들어 전북에서 근로자 7명이 숨졌다.

이번 현장점검은 건설 현장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추락·낙하물·끼임·부딪힘 등에 관련한 예방조치와 작업별 소화시설·안전망·작업발판·안전간판 등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이행 확인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도, '안전한 동반자'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 따라 맹견사육허가제·기질 평가 기존 맹견 소유자 제도 시행 6개월 내 사육허가 완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와 '기질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두 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맹견사육허가제도는 도사견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며, 기질평가제도는 동물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정할 수 있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수의사, 훈련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26일 발족하고,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공격성 기질에 대한 평가 및 심의 등을 수행한다.

또한 맹견 수입신고가 의무화된 맹견을 생산·판매·수입하는 사람은 기존 영업허가 외에 맹견취급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 맹견 소유주는 27일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사육허가제 대상인 도사견, 핏볼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인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질평가(사전조사-본 평가-평가후 조치)를 거쳐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이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

정할 수 있다. 10월 27일부터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맹견 취급허가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신규제도의 시행으로 맹견 등 관련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내달까지 봄철 도로정비 실시

위임국도·지방도·시군도 등 8361개 노선 6863km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5월 말까지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상반기 봄철 도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밝

혔다.

최근 겨울철 잦은 강설 및 강우에 따른 동결융해 현상으로 발생한 포트홀과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정비한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철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 순환을 강화하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도로정비 대상은 8,361개 노선에 6,863km(위임국도 259km, 지방도 1,891km, 시·군도 4,713km)의 도로시설물이며, 시군 및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청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집중

점검 및 도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사항으로는 △포장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파손부위 정비, △낙석과 산사태 위험지구 및 산마루 측구 정비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기능 확보 △배수관, 측구, 도수로 등에 쌓인 퇴적물 제거 및 세굴부위 정비 △과속단 도로표지, 불법 점용시설물 등을 추진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